

“우리 삶이 살아있는 법문”

현각 스님, 선학원 초청법회서 법문

미국 하버드대에서 진리를 찾아 한국에 온 푸른 눈의 남자 현각 스님이 한국불교가 서양불교보다 실천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각 스님(독일 불이선원 선원장)은 선학원(이사장 법진이) 3월 16일 서울 안국동 선학원에서 개최한 초청법회에서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꾸준한 선(禪)수행으로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면 본래면목에 머무를 수 있다”며 “우리 모두는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다만 생각에 집착해 자꾸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문제”라고 법문을 시작했다.

현각 스님은 “순수적으로 마음 속에서 일어난 생각을 사실이라고 믿어 그에 반하는 것으로 갈등과 고통이 생겨나는 것”이라며 “선을 통해 생각 이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현재 독일 뮌헨에 설립한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40여 외국 불자들에게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스님이 급작스럽게 독일로 건너간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

스님은 생활이 곧 수행이며, 삶이 곧 법문임도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우리 삶이야말로 살아 있는 법문이다. 생활 속에서 가르



독일 불이선원장 현각 스님이 3월 16일 선학원에서 ‘참 나를 찾아서’를 주제로 법문했다.

침을 실천하는 불자가 되라”고 말했다.

스님은 “불교는 이해가 아닌 실천하는 가르침”이라며 “한국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 많이 알지만 머리로는 이해한다. 서양 사람들은 불교에 대해 몇 마디만 들어도 바로 실천한다”고 강조했다.

현각 스님은 현재 독일 뮌헨에 설립한 불이선원(不二禪院)에서 40여 외국 불자들에게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한국에서 자리를 잡은 스님이 급작스럽게 독일로 건너간 것은 자신에 대한 성찰 때문이었다.

스님은 “아는 순간 내가 ‘현각쇼’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깊이 뉘우치며 수행에 전념할 것을 다짐해 독일로 건너가 불이선원을 세우게 됐다”고 말했다.

스님은 “불(不)은 불교적 의미도 있지만, 통일된 독일에서 활동하며 (분단돼 갈 수 없는) 평양 출신의 승산 스님이 남북평화 통일을 축원했던 것처럼 한국의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현각 스님은 “실천적이고 살아 있는 철학을 좋아하는 독일인들은 마음을 중심에 둔 불교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각 스님은 1999년 <만행-하버드대에서 회계사까지>를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스님은 서울 회계사 국제선원장을 역임하고 현재 독일 뮌헨의 ‘불이선원’에서 한국불교를 알리고 있다.

박선주 기자 zoo211@buddhapia.com

부처님 당시 여성수행자를 만나다

불교여성개발원 3.23~6.1 리더십 강좌

<수타니파타>의 여성재가수행자인 ‘사마와피’는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수행해 죽을 직전에 깨달음을 성취한 인물이다. 코삼비국 왕비인 사마와피는 다른 왕비의 시기·질투 살해 음모에도 타격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오직 깨어 있던 인물이었다.

부처님 당시 시어(施與) 제도로 불렀던 ‘비사카’는 자신에게 남은 돈을 수행의 방편으로 사용했다. 비사카는 자신의 재물을 기쁜 마음으로 보시해 몸과 마음의 고요함으로 깨달음에 한발 다가섰던 재가수행자였다.

이런 부처님 당시 여성 수행자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여성불자의 역할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이은영)은 3월 23일~6월 1일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템플스테이 통합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내안의 불성을 실현하자’를 주제로 제6차 리더십 교육을 개최한다. 행사에서는 초기경전을 비롯해 <금강경> <화엄경> 등 경전 속 여성재가불자에 내용을 시작으로 조직에서의 여성리더십, 불교여성으로서의 새로운 비전 세우기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또, ‘평화통일 성지순례’를 비롯해 전나무 표현예술치료 전문가가 진행하는 예술매체를 이용한 내면치유와 비전을 세우는 시간도 마련된다. 동국대여경원 이미령 역경위원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간절히 수행했던 인물의 삶을 지금 여성 불자들이 나누고 싶다. 이번 강좌를 통해 한국 여성 불자들이 2600년 전 여성 재가수행자들의 모습을 투영

해 지금의 삶을 살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수경 불교여성개발원 여성인재개발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자비와 지혜를 겸비한 경전 속 여성성지식을 만나 지금 여성 불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성불자간 연대의식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적극적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이은영 원장을 비롯해 배금자 변호사, 이영호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장, 중앙승가대 분각 스님, 황수경 동국대 강사, 이미령 동국대여경원 위원, 이화영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등이 강사로 나선다. 수강료 20만원. (02)722-2101 박선주 기자

장애아동 심리치료

본동종합사회복지관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전문심리치료를 통해 장애아동들의 꿈을 찾아주고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산하 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종성·이하 본동복지관)이 발달·정서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심리치료 프로젝트 ‘꿈을 찾아서’를 추진한다.

2010년 1월~12월 진행되는 심리치료지원사업은 약 2개월간 준비과정을 통해 대상자 9명을 모집했고 3월 24일부터 아동 특성에 따른 개별 심리치료 및 상담으로 진행된다.

심리치료지원사업 ‘꿈을 찾아서’는 △전문심리치료 △지지체계프로그램 △가족 상담사 간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3가지 테마로 구성됐다.

본동복지관을 보다 효율적인 지원과 깊이있는 상담을 위해 전문가자문위원 위촉을 준비하고 있다. (02)817-8062 박선주 기자

장애아동 금전관리 교육

승가원장애아동시설(원장 동옥)은 3월 26일 아동시설 앞마당에서 보광혜미리마트(회장 홍석기, 이하 혜미리마트)와 카자니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멋진 어린이의 나라’라는 뜻의 ‘카자니아’는 아동 대상의 금전관리 체험 교육이다. 아이들은 카자니아 프로그램을 통해 놀이와 함께 금융투자 지식을 배우게 된다. 행사에는 60여 장애아동들이 이동형 편의점의 점장과 고객이 돼 상품 판매와 구매를 하며 경제지식을 습득한다.

박철우 사회복지사는 “체력학습을 통해 아이들이 점액예절을 배우고, 보다 쉽게 경제개념을 이해해 금전지식을 익힐 수 있어 유익하다”고 말했다.

승가원장애아동시설은 혜미리마트와 함께 아동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전개할 예정이다.

이건준 혜미리마트 상무는 “이동형 편의점을 활용 할 계획이다. 전국 각지의 복지시설이나 소외지역을 방문해 물품 및 경제체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은정재단 장학후원회 출범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산하 장학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 이하 은정재단)은 3월 16일 서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서 장학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한 장학후원회는 고문단과 자문위원단, 운영위원단으로 구성됐다.

5명으로 구성된 고문단은 조기송(사)환경과사람들 공동상임대표가 상임고문을 맡았다. 자문위원단은 9명으로 봉화 정량사 주지 지현 스님

이 자문위원장을 맡아 은정재단 장학후원 사업을 지원한다. 은정재단의 홍보도우미로 활동하게 될 운영위원단은 위원장 이진화 경ભ려실 실무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꾸려졌다.

은정재단 윤승현 과장은 “후원자와 회원간 네트워크 구축으로 후원자들이 은정재단의 인재발사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학금 수혜자와 장학후원회 간 교류의 장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이웃종교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기 추모

한·중·일 천주교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운동 펼쳐

“코레아 후라! 코레아 후라! (대한국 만세)”

안중근 의사가 1909년 10월 26일 하얼빈 역에서 조선 집담의 원훈인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뒤 관총을 내던지고 외친 소리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인 안중근 의사는 ‘한국의 모세’ ‘한국의 사도 바오로’라고 불릴 정도로 독실한 가

톨릭 신자였다.

안중근 의사가 거사에 앞서 총알에 십자가 표시를 새겨 넣고 성공을 위해 기도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감옥에서도 이토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성호를 그으며 “하느님 감사합니다”며 기도했다고 전해진다.

2010년 3월 26일은 안중근 의사

의 순국 100주기가 되는 날이다.

한국과 중국, 일본 가톨릭 신자들과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안 의사의 순국 100주기를 맞아 다양한 행사를 펼친다.

한·중·일 가톨릭 신자들은 ‘목주기도 100만단 봉헌 운동’을 펼치고 있다. 해외선교를 후원하는 평신도 모임인 ‘직업선교후원회’, 안중



안중근 의사

근 의사가 투옥됐던 휘순 감옥 인근의 중국 다롄(大連) 한인성당, 일본 오타시 성당 신자들을 중심으로, 안 의사의 하얼빈 의거 100주년인 지

난해 10월 26일부터 계속되고 있다. 직업선교후원회와 다롄 한인성당은 안중근 토마스 의사를 주제로 한 원고모집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카페를 통해 댓글을 다는 형식으로 목주기도 운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안 의사의 순국 100주기인 3월 26일 오후 6시 명동대성당에서 교구장 정진석 추기경 주례로 추모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서울대교구는 “철저한 가톨릭 신앙인이었으며 동양의 평화, 나아가 세계 평화를 꿈꿨던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은은 기자

사랑의교회 최다 장기기증

서초동 사랑의교회(담임목사 오정현)가 국내 단일기관·단체로는 최다 장기기증등록 기록을 세웠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본부장 박진택)는 “사랑의 교회가 3월 3일 장기기증 예배에서 800명, 7일에 5270명의 교인이 장기기증등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랑의교회는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와 협력해 1993년에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을 시작했다.

다. 이후 교회는 1999년, 2006년, 2008년까지 4회에 걸쳐 캠페인을 진행했고, 올해 3월 3·7일 진행된 장기기증등록 캠페인으로 총 1만6083명의 장기기증등록 희망 접수를 받았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이 기록은 현대중공업그룹이 2008년에 세운 1만5315명 장기기증 등록기록을 갱 단일기관·단체 최다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은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국최면과학원장 임재형 박사

커버넌트대학교 상담학 박사 미국 스탠튼대학교 최면학 교수 국제 임상 최면 전문가(ICHT) 공인 심리 상담 전문가 한국최면지도사협회장 미국 국제최면 치유학회 이사 일본 최면의학심리학회원

인천교대, 충남대, 청주대 에서 최면학 강의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경찰관서, 기업체 등 에서 최면 특강

KBS, MBC, SBS 등 각종 TV방송에 다수 출연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최면, 최면학 총론, 최면요법 등

▶ 개강 : 2010년 3월 29일(월) 오전 10시 ~ 오후 5시 까지 (개강 당일 1회에 한하여 무료수강 가능)

▶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 심리상담사 자격증 취득 가능

전생 요법 : 도대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몸은 왜 이렇게 아픈것일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 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 치유 : 내안에 누가 있는것 같아요... 누군가 내 머리속에서 뭐라 이야기하는것 같아요 내가 나를 조종 할 수 없어요. 등 환청, 환각에 시달리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 행동, 괴벽, 정서불안, 악몽, 가위눌림 등의 증상으로 고통 받는 경우

사주 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 다니니 황사 악사요...

미국 스탠튼대학교(Stanton University)부설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시 중구 대서동 248-301(청운빌딩2층) 042) 255-0734~5

안내자료 전생요법, 빙의 치유 및 명리학 강의내용 등 자료 비디오 테잎을 보내드립니다.